

무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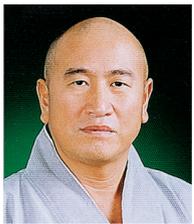
음식이 갖는 힘

밥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상징이자 기호이며, 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유난히 우리에게 밥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밥과 관련지어 말하거나 밥에 관한 일화들이 많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단식투쟁을 하고, 살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한다.

드문 일이 되었다. 식구들이 밥을 같이 못 먹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부부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엄마들이 직장 일을 하고, 이혼이 많아져 엄마 혹은 아빠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 꾸리느라 시간 맞춰 함께 밥 먹기가 어렵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원수처럼 틀어진 가족들에게 우선 같이 식사하라고 권한다. 몇 번 같이 식사하다 보면 아무리 사이 나쁜 가족들도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것이다.

가족 식사의 이점은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다. 부모·형제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적으로 발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중상
(청계사 회주)

또 '식사하셨냐'는 인사로 상대의 안부를 묻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밥벌이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나중에 밥 한 끼 먹자.'라는 말로 고마운 인사를 감을 하고, '밥심으로 산다.'거나 '누군가 일에 휘방을 놓으면 '다 된 밥에 채 뿌린다.'라고 표현한다. 어디 그뿐일까. 누군가가 미우면 '국물도 없

가족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 함께 먹는 '밥' 삶의 결빙 녹여

다.'거나, '같이 밥 먹기도 싫다'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식구'나 '한술밥을 먹는 사람'처럼 밥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의 화식문화는 유명하지 않던가. 이처럼 우리 민족은 밥에 대해서만큼은 진정이고, 진심이었고, 또 경건했다.

많은 아이들에 비해 성격이 원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학업성적도 좋다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 간 유대감도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 교육. 부모 못지않게 아이들도 바빠서 온 가족이 대화할 기회는 식사 때가 거의 유일하다. 식탁에 주기적으로 둘러앉으면 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가치관과 전통을 가르칠 수가 있다.

승가에서 다함께 하는 식사 발우공양 때, 장삼과 대가사를 착용하고 <소심경>을 외운다. <소심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일생을 요약한 것과 불보살의 명호를 외워 그 은혜를 기리고, 공양물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아귀까지도 배려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고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굳건히 한다. 음식이 갖는 신비로운 힘이다.

밥은 오래 집에서 먹는 것이고 너무도 당연하니 따로 지칭하는 단어도 없었다. 지금은 그것을 '집' 자를 넣어 '집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당연하던 게 더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따스하고 정겨운 느낌, 그 원초적 사람 냄새로부터 우리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食口)들이 더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 식사가 가물에 콩 나듯

수능 전 50일 반환점, 또 다른 시작

걱정, 근심 버리고 마음을 울려 기도하라



스님 기도에 맞춰 학업성취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는 사부대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9월 27일 청계사 설법전에서 주지성행, 명종, 원덕스님, 수험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진 기도를 봉행했다.

천수경 독경과 관음정경을 하며 일심으로 참회를 하고 원덕스님이 수험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며 축원을 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진심을 다해 자녀의 합격 발원을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 근심을 버리고 기도의 목적만 오로지 생각해 진심으로 마음을 울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수험생들에게 전해져 기쁨을 받는다. 50일 남은 반환점은 또 다른 시작이다. 기도하는 동안 맘을 편하게 가지고 힘써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 모든 수험생 자녀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특별법문을 했다. 이어 신도회에서 준비한 수험생을 위한 단주를 학부모들에게 나눠주면서 주지스님의 참회진언 기도로 마무리했다. 청계사에서는 수능 전 21일 특별기도로 10월25일~26일 1박2일 경주 석굴암 철야기도, 불국사 새벽예불이 예정되어 있다.

(글:사진 주향진성)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⑨1 가난한 사람의 헛된 욕심

돈을 다 세기 전에 그 주인이 나타나

○.....이 이야기의 가난한 사람처럼 요즘 사람들도 쉽게 일확천금하고자 한다. 그리고는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만다.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실패 먹고 자고 놀고 즐기는데 써버린다. 자신의 재산이 비록 부자와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땅 흘리며 일해서 모은 귀한 재산이라는 것을 잊을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정착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와 평등이다. 진정한 자유는 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지키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큰 부자를 보고 그와 같은 재물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조그만 재물마저 물속에 버리려고 하였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 재물은 비록 적지만 늘릴 수도 있다. 그대의 앞날은

아직 멀었는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고 하는가?"

<해설> 세상의 여러락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마음에 바라는 것은 항상 부족을 느낀다. 그러나 덕이 높은 이만큼 이익을 얻지 못한다.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생각으로 그와 같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다가 그만 덕기를 집어치운다. 그것은 마치 여러락은 사람이 부자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물마저 버리는 것과 같다.

○.....평등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를 바르게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분수에 따라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는 성숙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기록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조수환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준순 50부, 김윤호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고은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석굴암 철야 정진기도

- 일 시 : 10월 25~26일 수요일 오후 2시(무박2일)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 장 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 동참금 : 20만원
- 철야기도 후 다라니 나눠드립니다.
- 동참 못 하신 분들은 절에서 나눠드립니다.
- 일반 신도님 신청가능, 후원만 올리실 분 후원비 5만원
- 석굴암기도로 인해 청계사 사중철야기도는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 본 청계사에서는 동안거 맞아 100일 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7(2023)년 11월 27일(음력 10월 15일) 월요일 사시
- 회 향 : 불기 2568(2024)년 2월 24일(음력 1월 15일) 토요일 사시
- 장 소 : 청계사 큰 법당
- 동참금 : 5만원
- 차량안내 :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학업(대학수능) 성취 회향기도

- 일 시 : 11월 16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영가 합동 천도제

본 청계사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과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합동 천도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참다운 수행 공덕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15일 (음10월 3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극락보전
- 동참금 : 30만원
- 계좌번호 : 109-058786-01-242 (기업은행 청계사)
- 연락처 :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 준비물 : 천도제 당일 접수대에서 영가 옷 찾아 올리세요.

가을 성지순례

지장회에서 주관하는 가을 성지순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불법이 깃든 산사를 찾아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을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출발
- 순례지 : 백양사, 불갑사
- 동참금 : 6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 진참치(구 오성갈비)앞
- 문 의 : 종무소(031)426-2221, 2348
담당자 010-2386-8050(회장 정성심) 010-3933-8647(총무 김시연)

절요

절요는 강원 사십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4 頓悟漸修(6)

④ 悟修와 頓漸義(2)

ㄷ, 兩師의 頓漸比較

이 글의 뜻을 의거하여 깊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깨달은 뒤의 뒤는 문에는 뜻이 있다. 「이것을 의지하여 닦는다」한 이하는 「자신의 마음은 본래 번뇌가 없다」는 뜻에 의하여 「살피지도 않고 맑히지도 않으므로서 텅 비어 도에 합하여 마음대로 닦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근본 一行三昧라 하여 청량의 세운바 頓修이다. 다음에는 만일 생각 생각이 하는 근본 삼매로 조차 마음대로 고요히 알아서 온갖 행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깨달음도 가없이 여기는 생각과 원하는 마음이 서로 도움으로서 생각 생각에 온갖 三昧를 닦아 익혀 몸의 지혜와神通의 광명이 차츰 자유롭게 되어 널리

만일 性具門 쪽에서 본다면 처음 깨달은 때에 十度萬行이 한 생각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중생을 이미 전부 제도한 것이 되겠지만, 만일 現行門 쪽에서 본다면 어찌 生熟의 (차별이) 없겠는가. 다 말하기를 「여러 성인의 공력이 온전하지 않다」하였는데 바로 이것이다.

또 (청량의 華嚴) 疏 가운데도 頓悟頓修를 밝힌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른바 頓修는 살피지도 않고 맑히지도 않고 텅 비어 도에 합하는 것으로 修를 삼는다」하였다. 그러므로 圭峰의 세운바 先悟後修의 두 가지 뜻 가운데 「根本無念의 修」가 그것이다.

나의 생각으로 추구해 보면 앞에서 밝힌 세 가지 뜻(頓悟頓修, 先修後悟, 修悟一時) 가운데 셋째 마음이 없이 비춤을 잊고 마음대로 고요히 한다.」한 것이 「생각 없이 일을 판단

생각 없이 닦되, 본체를 깨닫는 것이 無

생각도 형상도 없는 것을 알 것이니,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無

깨달으며 마음은 저절로 생각이 없어지니, 깨달은 뒤에 無念

여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盧舍那 부처님과 같다는 것이니 별행록 가운데 세운바 漸修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圓漸(頓悟漸修)이고 漸圓(漸修頓悟)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깨달은 바 自心眞法界의 원만한 수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생각이 닦되 일을 판단하는 수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禪源集에서만 밝힌 것이 아니고 별행록 가운데도 二修의 뜻이 있다. 즉 하택중에 이르되 「만약 착한 것의 깨우침을 입어 비교 고요한 삶을 담박 깨달으면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을 알 것이니 무엇이 나와 사람이 되겠는가. 모든 빈 모양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생각이 없어질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자 곧 깨달을 것이니 깨달으면 곧 없어지는 것이라 수행의 묘한 문은 오직 여기에 있다.」 「단지 본체를 깨달은 것이 無이고 끊어지고 없어진 것이 無인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깨달은 뒤에 無念으로서 닦는 것이다.

또 이르되 「비록 萬行을 닦아 갖추다 하더라도 오직 생각 없는 것으로서 으뜸을 삼는다. 단지 생각 없음을 얻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고 어여빠 여기는 지혜가 저절로 더욱 밝아지며 내지 응응이 무궁하나니 이것을 이름 하여 부처라 한다.」 하니 이것은 바로 이 근본 一行三昧를 떠나지 않고 자연히 점점 온갖 三昧를 얻어 넓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오와 점수는 이름은 비록 같으나 두 스님께서 세운바 돈오와 점수는 아주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한다」는 두 가지 닦음의 뜻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담박 깨달아 일을 판단 한다」는 뜻은 거기 나타나 있지 않다.

疏 가운데 또 이르되 「만일 본래부터 佛德을 갖춘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한 생각에 十度萬行을 구축한 것이 닦음이라 하니 이것은 解悟와 證悟에 통한다.」 하니 이 가운데 밝힌바 일을 판단 하는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일 解悟(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쪽으로 본다면 이것이 性具門이라 공행이 담박에 끝난 것이 아니고 證悟(올바른 지혜로 진리를 증득한 것) 쪽에서 본다면 곧 이것이 現行門이라 담박 닦아 일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규봉도 오직 悟後漸修만을 밝힌 것이 아니고 또한 頓悟頓修門 즉 일을 담박 판단하여 마친다고 말했다.

(頓悟頓修는 다음 다시 밝히겠다.) 그러나 그 判教에서는 말하되 「이것은 여러 생애 점점 얽혀 나타낸 것이다」 하였으니 불교측에서 보면 華嚴宗 化儀頓의 「교화를 받는 인연이 성숙한 보살」의 종류라 이제 와서 숭상할 바가 아니다 지금 숭상해야 할 것은 頓悟漸修이다 (그것을) 고리면에서 본다면 逐機頓의 「교화를 받는 범부로서 뛰어난 근기와 예민한 지혜를 가진 이의 행할 바」이니 이 다음에 간략히 이끌어 밝혀 증명하여 조심자로 하여금 그 강요를 알고 바른 신심을 내어 속히菩提를 증하도록 하겠다.

덕민대중사 <불국사 승가대학원 원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권지품(勸持品) 줄거리 <하>

‘제바달다품’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여 수행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다. 특히 여인성불(女人成佛)과 악인성불(惡人成佛)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권지품(勸持品)’에서는 법화경이 거룩한 교(敎)이기에 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퍼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제자들이 등장한다. 권지(勸持)란 법화경을 수지신앙(受持信仰)하기를 권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법화경을 그저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믿고 그 믿음을 일화용이 아닌 끊임 없이 지속해서 가져 몸으로써 행하여 세상에 널리 퍼는 것을 말한다. 분명교, 교(敎)를 세상에 퍼겠다는 결심을 한 이상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교육열이 매우 높아 학문이 진보하며 사람들이 영리해졌다. 반면 무슨 일든 해보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론만 따지고 몸으로써 실행해 보려는 결심이 없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가고 아

무 일도 못 한다. 과연 곤란을 이겨낼 수 있나 하는 것은 앞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직접 하면 견뎌 낼 수 있다. ‘몸으로써 해보라, 힘들더라도 좋다. 힘든 것은 처음부터 각오한 바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상에 퍼려는 큰 결심을 고

무상도 아끼기에 목숨도 중히 여기지 않아
박해 무릅쓴 인욕으로 법화경 홍보의 서원

백한 것이 바로 권지품이다.

많은 보살과 학부 학인들이 법화경을 전하겠다고 다짐한다. 서원을 세우는 이들은 약·사건·증상만 등을 가진 사람들의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 발심할 것이라고 한다.

법화경을 닦고 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기는 데는 불퇴전의 인욕심이 있고 있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가고 아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출가분해될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립, 괴롭힘,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 흥분, 기쁨,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 흥분이나 하는 것은 앞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직접 하면 견뎌 낼 수 있다. ‘몸으로써 해보라, 힘들더라도 좋다. 힘든 것은 처음부터 각오한 바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상에 퍼려는 큰 결심을 고

서 특별히 후대하시지도 않지만 반대로 박대하시지도 않는다. 이 두 비구니에 대한 수기로 비구니들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비구니가 성불하느냐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불하기 위해서는 무량겁을 닦아야 하는데, 그 오랫동안 얼마든지 여자가 아닌 몸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지품의 계승 부분에서는 법화경을 호지하는 사람들이 증상만이 많은 기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들이 나온다. 누더기를 걸치고 깨달음과 육신통 등을 얻은 체하며 법화행자를 비방하면서 속인들의 공경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로 보면 법화경이 형성될 당시 법화행자들과 다른 수행자들 간에 대립이 있었거나, 또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호종하는데 박해가 많으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구절로 보면 법화경이 형성될 당시 법화행자들과 다른 수행자들 간에 대립이 있었거나, 또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호종하는데 박해가 많으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때문에 목숨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일불승 법화경을 세상에 퍼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숨보다도 도(道)가 중하다는 그런 가르침이다.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 말법인 지금, 단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법화경을 권하여 받아 지니게 하는 불사를 이루는 것이 불자로서 해야 할 도리이다.

뉴스&뉴스

내세특작불 하세요”라고 법문했다.

<글 서용화수>

33관음성지 법화경독송 순례단 방문



유난히 화창한 가을날 청계사를 찜찜령 울리게 하는 독경 소리가 들렸다.

지난 9월 24일(일요일) 8시부터 월악산 덕주사, 서울 개운사, 안산 보문선원에서 8대의 버스로 300여명의 법화경 독송 순례단이 관음성지를 찾아서 19회차로 청계사를 방문했다. 법화경을 약 3시간 독송하고 관음정근, 축원, 반야심경, 33관음성지 가족발원문을 끝으로 회향했다. 이날 주지 성행스님은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꽃으로 법화경 기도공덕은 무한공덕이며 눈에 보이는 실체가 다 아니며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이심전심과 자비희사의 부처님 법으로 많은 공덕을 쌓고 도량 순례하며 법화경 기도 열심히 하여

위촉장 수여



지난 9월 15일 주지성 행스님은 최돈익 변호사(국민의힘 만안구 당협 위원장)에게 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청계사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돈익 변호사는 2년 동안 청계사는 물론 신도들의 법률상담을 하며 청계사보에 법률산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글 심대덕심>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사 문화탐방

지난 10월 10일 청명한 가을날 ‘내 손안에 청계사’ 프로그램에 의왕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체 30여명이 동참 이호연 선생의 지도와



안내로 역사와 문화탐방과 더불어 전통염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동참한 사람들은 문화탐방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글 황청망심>

후원금 전달



10월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사)마이트리 이사장 주지성행스님이 청계동 체육대회에 후원금으로 일백만원을 전달했다. <글 정자비심>

입학생 자녀를 위한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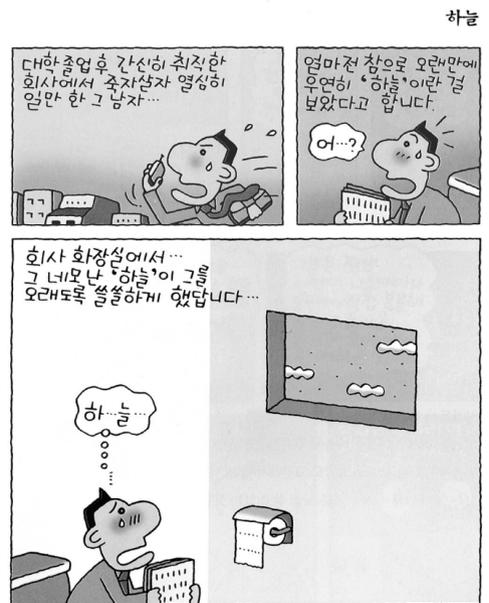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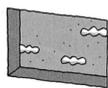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선물하시는 부처님과 고달픈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을 향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청정한 승가에 귀의 하나이다. 저희들은 크게 거룩한 사람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님을 받들어 이해와 사랑을 갖춘 엄마, 아빠가 되려 하옵니다. 배움보다 큰 기쁨은 없으며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하여 기도 발원하옵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 시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보고 늘 기쁨과 함께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갖가지 시련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마주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행복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성실하게 기도하여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공손과 겸손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

하기를 발원합니다. 자녀들의 현명한 노력에 저희들의 기도가 더해진다 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지원하는 학교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연마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외웁니다. 먼 훗날 이러한 기도와 정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소 짓기를 희망합니다. 현현의 조상님 그리고 법연의 수많은 스승님들의 무한한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사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거룩하신 삼보님이사이!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지켜주소서!

낮은 곳에 있어봐야 높은 데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고
어둠 속에 처해봐야 햇빛이 눈부심을 알게 되며
고요함에 빠져봐야 바빠 움직이는 게 번잡함을 알게 되고
침묵을 즐겨봐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채근담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13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장성지 ⑥ **불갑사**

영광 불갑사 꽃무릇 ... 상상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나무 조각을 접목해 전체 형태를 만들고 동시에 머리카락이나 세부 장식 등은 흙으로 정교하게 빚어 소조상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곳 목조사천왕상은 원래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서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 연기사가 폐사되면서 설두선사(雪鬪禪師)가 1876년 영광 불갑사로 이안했다. 그 이후부터는 '사천왕의 보호 덕분에 불갑사의 전각이 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불갑산(516m)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이며, 상사화로 유명한 곳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이다. 창건시기가 분명하지 않아 384년(백제 침류왕 원년)에 마라난타가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백제 문주왕 때 행은이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중창하였고, 고려 후

기에 각진국사가 머무르면서 크게 중창하였는데 당시 수백명의 승려가 머물렀으며 사전(寺田)이 10리 밖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범람이 중창하였고 1634년에는 해릉이 중창하였는데,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절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다. 1802년(순조 2)에는 득성이 대대적으로 중창을 하였다. 또 869년(고종 6)에는 설두가, 1876년(고종 13)에는 설파가, 1879년(고종 16)에는 동성이 각각 중창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대웅전(보물 830)을 비롯하여 팔상전, 칠성각, 일광당, 명부전, 만세루, 범종루, 향로전, 천왕문(전남유형문화재 159) 등이 있다. 이외에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이 700년 정도 된 참식나무(천연기념물 112)가 있다. 천왕문 안에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가 목각하고 고종 1년에 설두선사가 불갑사를 중수하면서 폐사된, 전북 무장연기사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우측에는 1층과 2층에 각각 종과 북이 걸린 육각누각이 있고 그 누각 옆에 참식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세 칸 문을 연화문과 국화문으로 장식했고 좌우 칸에는 소슬 빗살무늬로 처리하여 분위기가 매우 화사하다. 불갑사 안에는 만세루·명부전·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이 있다. (정리 황형량님)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14)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제3장 보안보살장(4)

***3-5 인연으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
我今此身이 四大和合이라 所謂髮毛爪齒와 皮肉筋骨과 髓腦疝色은 皆歸於地하고 唾涕膿血과 津液涎沫과 痰淚精氣와 大小便利는 皆歸於水하고 煖氣는 歸火하고 動轉은 歸風하니 四大各離하면 今者安身이 當在何處요 卽知此身이 畢竟無體어늘 和合爲相이 實同幻華로다
四緣이 假合하야 妄有六根하니 六根四大가 中外合成이어늘 妄有緣氣가 於中積聚하야 似有緣相이니 假名爲心이니라

***講說**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 실체가 없는 무지개 같은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근본 번뇌인 무명(無明)이라 합니다.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서 세상의 모든 잘못이 이 무명에서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허깨비인데 그것을 모르고 진자인 줄 알아서 몸과 마음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고, 이 네 가지는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내것으로 집착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몸을 '참 나'라 여겨서는 안 되고 다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연 속에 내 생각과 나와 내 것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도 몸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환이듯, 마음도 인연의 소산인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인과 연이 그 순간 부딪치지 않는다면 지금 그 마음은 다른 형태의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 순간 조건에 의해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단지 그렇게 일어나서 사라질 뿐이지 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즐거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소산으로 생긴 행위와 그 마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 3-6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善男子야 此虛安心이 若無六塵이면 則不能有며 四大가 分解하면 無塵可得이니 於中緣塵이 各歸散滅하면 畢竟無有緣心可見이니라

***講說**
'육진을 인연한 그림자를 나의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고 하고, '환(幻)인 줄 알면 곧 여윈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여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 몸을 관(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대(四大)가 허망하여 각각 흩어져 사라지고, 안으로 육근(六根)이 이미 없다면 밖으로 상대할 육진(六塵) 또한 없으니, 육근과 육진이 사라지면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마음도 역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사찰음식 배워보기 들기름등근호박구이

***재료:** 등근호박1개, 들기름 1T, 올리브오일 1T, 소금약간 (양념장: 쪽파, 다진마늘 1/2, 맛간장 2T, 들기름 1T, 고춧가루 1/2T, 통깨)

- *만드는 법:**
1. 등근 호박을 반달모양으로 두툼하게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준다.
 2. 절여진 호박을 키친 타올로 물기를 빼준다.
 3. 팬에 올리브오일, 들기름을 반반 섞어 중불에서 호박을 구워준다.
 4. 구워준 호박에 먹기 전 양념장을 뿌려준다.
- (정리 주향진성)



삼국 신라 서기 60년 8월 14일, 황금의 귀족에서 나온 어린아가가 왕의 명으로 태자에 책봉된다.

이름은 어린아기라는 뜻의 '알지'로 불리고, 성씨는 황금(金)을 뜻하는 '김(金)'이라 했다. 이렇게 신라의 김씨는 알지에서 시작된다.

제13대 미추왕(262~284년)은 김알지의 7대손이다. 덕이 있고 세상이 떠난 후에도 나라의 재앙을 제거하며 환난을 구제한 신비한 호국왕이다. 제14대 유례왕(284~298년)때 이서국(경북 청도에 있던 나라) 사 람들이 금성에 쳐들어왔다. 신라에서도 크게 군사를 동원했으나 오랫동안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군사가 와서 신라 군을 도왔는데 그들은 모

두 댓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 이들은 신라 군사와 힘을 합쳐서 적을 쳐부수고 적군이 몰려간 뒤에는 사라졌다. 다만 댓잎만 미추왕의 능 앞에 쌓여있을 뿐이었다. 그제야 미추왕의 혼령이 도와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 미추왕의 능을

민족 '혼' 자주성 기록

삼국유사 속 불교이야기

② 신라 미추왕

'죽현릉'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779년(제36대 혜공왕)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해공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곧 대신 김경신을 보내 김유신 장군의 능에 가서 잘못을 사과하게 하였다.

또 김 장군의 공덕에 보답하기 위해 전답 30결을 취신사에 하사하여 김 장군의 명복을 빌게 했다. 취신사는 김유신 장군이 평양을 토벌한 뒤 그의 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절이다.

죽엽군으로 나라지키고 김유신의 혼령 달래

일어났다. 그러더니 갑옷에 무기를 든 40여명 군사가 김 장군의 뒤를 따라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능 속에서 무엇인가 하소연하는 듯 진동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은 평생 어려운 시국을 타계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 | |
|---|---|--|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인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3,778,4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 송생금, 김경연, 조남명, 김문심, 김분희, 정호순, 김정례, 박경준, 김남규, 박기호, 이종원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아름다운 '옛' 인연

앞으로도 지금의 인연 이어가고 싶어



추석을 앞둔 9월 22일 고마키시(일본 아이치현)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고마키지구 한일친선협회와 가와시마기미코 고문(감사)이 안양시 한일친선협회 간담회 차 우호 방문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녹향원에 방문했다. 1990년 故 조명호님의 발심으로 녹향원이 개원한 이후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녹향원을 '마음의 고향'이라 말한 기미코 고문은 처음 개원했을 때 녹향원 정원에 '톨립 구근'을 심어 가꾸었으며, 녹향원 주변 청계산 일대에 나무를 심은 일화를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2020년 녹향원 신축 이후 처음 방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글 사회복지사 황승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금액, 지출, 전월이월금, 수입/지출/차기이월금. Total revenue: 3,778,400; Total expenditure: 3,330,780.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직접후원: 김창식, 윤미애, 조한진, 조현상, 조수현,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순중, 변일용, 후원금: 15,000원-박성준, 신영옥, 후원금: 18,090원-김정란, 후원금: 20,000원-김현화, 백종덕, 박정선, 김재태, 박정목, 박은영, 이대환, 이미애, 박민주, 이원철, 후원금: 20,000원-김상윤, 조점이, 후원금: 50,000원-심경미, 노홍복, 후원금: 22,270원-김춘술, 후원금: 30,000원-윤채규, 송생금, 김경연, 구은정, 이영순, 김민경, 후원금: 37,600원-석각사종무소, 후원금: 40,000원-정희윤, 후원금: 50,000원-이중우, 유병주, 임기홍, 김나현, 김중철, 안해경, 추준호, 후원금: 100,000원-김동연, ㈜범양전력, ㈜메트로병원장례식장, 후원금: 250,000원-㈜전은엔지니어링, 후원금: 400,000원-의왕시청북지정정책과, 후원금: 500,000원-허종욱, 후원금: 600,000원-임신자

물품 후원

동안양행사탕회-빵, 명성에프엠씨-김, 송정석-떡, 가와시마기미코-배, 정현성-사과, 장미영-커피믹스, 한상준-포도, 사인머스켓, 이동우-배, 포도, 와인, 산들-김, 파riba게트인덕원점-빵, 최형용-멸치, 삼미주유소-쌀,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선물세트, 경기도의왕시의회-의왕사랑상품권, 김영숙-커피믹스, 컵라면, 서울구치소-온누리상품권, 전문권-롯데상품권, 최광진-사과, 사인머스켓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아름다운 사람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투명하게 가지고 갈 수 없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일과 관련된 자기 식견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이라는 개념 앞에서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 일을 일로만 하면 기쁨도 감사도 확신도 없다. 한낱 호구지책일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그저 고된 직업에 머물고 만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자기 확신의 힘도 커진다.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못 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하루해가 이미 저물어갈 때 오히려 저녁 밥 짓는 연기와 노을이 아름답게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야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사람도 인생의 황혼기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멋진 삶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권세와 명예 부귀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고서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청렴하다 할 수 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다고 말하지만 권모술수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고상한 인격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거름 많은 땅에서 거목이 자라는 듯 때 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아량 있어야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 같이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때문이야' 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며 멧떡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 이다.

가나인 인생길의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힘 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구에게 주었던 기억하기보다는 늘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원망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이다.

내가 남에게 베풀 공은 마음에 새겨 두지 말고 남에게 잘못된 것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풀 은혜는 잊지 말고 남에게 원망이 있다면 잊어야 한다.

거름이 많은 땅에서 토목이 잘 자라고 지나치게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때 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아량이 있어야 하고 너무 결백하여 자신의 관념으로만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벼들을 괴롭히거나 분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면 적으로 만들지는 마라. 만약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면 그에게 있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생활의 지혜

라면봉지 그냥 버리지 마세요.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은 뒤 무심코 버린 봉지를 부엌 도마에서 활용해 보자. 김치·

양파 등 음식을 썰 때 이용하면 도마에 냄새가 배거나 물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마늘 입 냄새 심할 땐 마늘 입 냄새가 심할 땐 치즈를 먹거나 우유, 밀크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 <경리 황정량님>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끼의 비밀

<경리 정재비님>

Table with 6 colum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cell contains a zodiac sign icon and a brief description of its characteristics.